번호: OP-F-006

제 목	갑상선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의 현황 Status in Incidence and Mortality of Thyroid Cancer				
저자 및 소속	윤상아1), 신명희1), 안윤옥2) 1)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2)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ang-A Yun1), Myung-Hee Shin1), Yoon-Ok Ahn2) 1)Department of Social and Preventive Medicine,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dge of Medicine				
분 야	역학 [암]	발표자	윤상아 일반회원	발표 형식	구연

목적: 갑상선암은 세계적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는 1993년부터 2001년 사이에 발생한 서울지역의 갑상선암 발생률 및 사망률을 분석하고, 사망률에 대해서는 그 비교를 위해 몇몇의 타 지역 사망률도 분석함으로써 갑상선암의 발생추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에서 발생률은 환자가 병원에서 처음 암으로 진단받은 초진일을 기준으로 1993년부터 2001년 까지 등록된 서울시지역암등록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사망률은 1993년부터 2001년 까지 통계청 암사망 자료를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인구수는 서울시 및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연령보정율(ASR)은 세계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산출된 갑상선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연도별 성별, 나이별 또는 지역별로 분석되었다.

결과: 갑상선암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며, 특히 30대 및 중장년층에서 높은 발생빈도를 보인다. 서울시 평균 갑상선암 발생률은 1993년부터 1997년 사이 인구 10만 명당 남자는 1.7명, 여자는 9.3명이고(세계인구 표준화률-ASR, 십만 당 남자 1.9, 여자 8.5),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인구 10만 명당 남자는 2.2명, 여자는 14.2명(ASR, 십만 당 남자 2.2, 여자 12.0) 이다. 연도별로도 ASR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여성에게서 두드러져 93-97년도에 여성암발생 7위였던 갑상선암이 98-01년에는 5위로 상승하였다. 서울시 평균 갑상선암의 사망률은 1993년부터 1997년 사이 인구 10만 명당 남자는 0.2명, 여자는 0.5명이고(ASR, 십만 당 남자 0.3, 여자 0.6),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인구 10만 명당 남자는 0.2명, 여자는 0.6명(ASR, 십만 당 남자 0.3, 여자 0.6)으로 비교적 예후가 좋아 발생률에 비해 사망률이 낮았다. 갑상선암 사망률의 지역적인 차이를 보기위해 98-02년도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사망률을 살펴 본 결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는 사망률이 부산지역이 높고, 광주와 전남지역이 낮았으며, 여자의 경우는 부산과 광주지역이 높고, 전남지역이 낮았다. 부산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남녀 사망률이 높고, 반대로 전남지역은 낮았으며, 광주지역은 남녀 사망률 차이가 약간 크게 나타났다.

결론: 본 분석결과에서 갑상선암의 발생률은 특히 여성에게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사망률의 증가는 미비하였다. 발생률의 증가는 최근 늘어난 갑상선암 검진률에 기인된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생률은 93-97년 자료만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인바, 그 원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암 발생 자료 및 사망 자료의 확보를 통해 양질의 통계자료를 산출하여 암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연구, 분석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암 발생 예방 및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